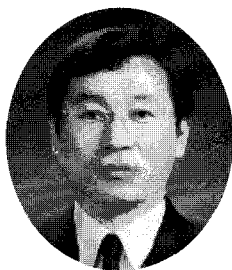


현황과 전망

# 농고 졸업생 진학률 늘고 취업률 줄어



막대한 자금 투입 불구 소득변화 없어, 농업인력 육성 소홀 결과  
농업인후계자 줄고 4H회 육성 지난, 산학협동 교육 활성화해야



이근수  
한국농업교육협회 사무국장

농업의 역할이 단지 식량안보적인 차원을 넘어서 자연자원의 보존과 국토의 균형적 발전,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산

업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자연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세계화, 개방화의 물결과 함께 외국의 농산물이 물밀듯이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재원과 15조원의 농특세 재원을 특별히 조성하여 농어촌 발전

대책을 세우고 1995년부터 본격적인 농업부문 투자에 정부가 나서게 되었으며,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많은 재원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농업의 생산기반은 보다 잘 조성되었으며, 농업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국가의 정책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수준은 큰 변화가 없다. 오히려 도시근로자와의 소득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고 각 농가의 부채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농업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농가의 재무상태는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구조조정사업으로 농업인의 복지가 증진되고 농업소득 수준이 높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농업정책에서 농업인력 육성 정책을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수한 인적 자원을 육성한 후에 물적

자원이 투입되어야 이러한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철저한 경영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농업경영인은 전문기술인으로서, 그리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자질과 기술이 요구된다.

## 농업인력의 변화

지난 몇 년 동안 산업별 취업자 비율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표 1). 1970년 이후 농림수산업에 취업한 비율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SOC 및 기타 부문에 취업한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70년에는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4백91만6천명(50.4%)으로 전체 취업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지만, 그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1년에는 2백19만3천명으로 전체의 10.3%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농업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농업인구가 계속 감소하게 된다면 우리 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지도 모른다.

표 1. 산업별 취업자의 변화 추이 (단위: 천명, %)

구 분	1970	1980	1990	2001
농림수산업	4,916(50.4)	4,658(34.0)	3,292(18.3)	2,193(10.3)
광공업	1,395(14.3)	3,096(22.6)	4,928(27.3)	4,219(19.8)
SOC 및 기타	3,434(35.2)	5,952(43.4)	9,816(54.4)	14,950(70.0)
계	9,745	13,706	18,036	21,362

자료: 농림부(2002). 농림업주요통계(각 연도)

이와 함께 농림어업 취업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9세 이하의 비율은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2001년에는 전체의 9.4%에 불과하다. 반면, 60세 이상은 1970년에 6.4%에 불과했으나 2001년에는 49.0%로 전체 농림어업 취업인구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표 2). 우리나라의 장래 농업을 책임져야 할 젊고 유능한 농업인력

표 2. 연령별 농림어업 취업자 구성비 변화 추이 (단위: 천명, %)

구 분	1970	1980	1990	2001
29세이하	1,533(31.6)	949(20.4)	289(8.5)	53(2.4)
30~39세	1,260(26.0)	898(19.3)	553(16.2)	154(7.0)
40~49세	1,058(21.8)	1,309(28.1)	761(22.3)	379(17.3)
50~59세	686(14.2)	979(21.0)	1,064(31.1)	535(24.4)
60세 이상	309(6.4)	520(11.2)	751(22.0)	1,074(49.0)
계	4,848	4,654	3,418	2,193

자료: 농림부(2002). 농림업주요통계(각 연도)

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에 대처하고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대의 후계 농업인력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 후계 농업인력의 육성 현황

### 농업인 후계자 육성

농업인후계자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1997년에는 8천5백26명이었으나 2002년에는 2천5백명이 선정되어 매년 후계농업인 선정자가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3). 그러나 2001년도부터 신규 후계농업인과 취농 창업 후계농업인을 분리하여 선정함으로써 농업기반과 영농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진입할 수 있어서 새로운 인력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농업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영농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고 영농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농자금만 지원된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우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 4-H 회원 육성

4-H회원은 매년 사업의 일환으로 과제를 이수하게 되는데, 과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농 4-H회 회원은 주로 식량작물, 축산, 원예 분야 등 주로 농업생산 분야의 과제를 이수하고, 학생

표 3. 후계농업인 선정 현황 (단위: 명, %)

연도	290이하	30~34	35~40	계
1998	2,502(31.8)	2,323(29.5)	3,038(38.7)	7,862
2000	1,399(29.9)	1,213(26.0)	2,062(44.1)	4,674
2002	1,070(42.8)	625(25.0)	805(32.2)	2,500

자료: 강대구·정철영·이근수(2003), 창업농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순천대학교.

4-H회와 일반 4-H회 회원은 교양취미, 봉사활동, 생활개선 분야 등 주로 농업생산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과제를 이수하고 있다. 교양취미 과제를 이수하는데 일반 4-H 회원 중 64.1%, 학생 4-H 회원 중 51.9%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어 일반 4-H회나 학생 4-H회를 통한 생산 농업인력의 육성은 현재의 상황에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농업계 학교의 진로 상황

**[농고 졸업생의 진로변화 추이]**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에 7.6%에 불과하던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학률은 매년 증가하여 2003년에는 전체 졸업생의 절반이 넘는 55.7%가 진학을 하였다. 반면에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은 1990년에 81.2%이었으나 취업자수가 매년 감소하여 2003년에는 전체 졸업생의 36.8%가 취업을 하였다(표 4). 한편 졸업자의 취업분야를 보면 전공분야의 취업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반면 비전공분야의 취업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고등농업교육기관의 졸업생 취업변화 추이]** 1990년 이후 농업계 전문대학 및 농학계 대학 졸업생의 농림업 취업비율을 살펴보면, 농업계 전문대학은 1990년의 44.7%에서 매년 계속 증가하여 2003년에는 72.2%로 증가하였다. 농학계 대학은 1990년의 43.0%에서 2003년에 48.8%로 큰 변화가 없었다(표 5). 현재 농업인력의 학

력 수준으로 볼 때 농업계 전문대학이나 농학계 대학 졸업생들이 생산 농업인력으로 유입되는 인원은 극히 적은 수로 보이며, 이들이 생산농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후계 농업인력의 육성 방안

### 학교교육의 단계적 육성

신규 농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체계적인 농업인력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초등학교에서는 교양농업을 더욱 강화하여 농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중학교에서는 농업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농업에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하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농업계고등학교와 농업계 대학에서는 실제 생산 현장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생산 농업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 농업계 학교에서의 농업인력 육성대책

농업계고등학교의 교육목표가 계속교육과 중국교육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중국교육으로서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농업 분야에 종사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단순 반복적인 직무수행 능력 중심의 교육보다는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그리고 사고력 길러주기 위한 교육내용이 강조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대부분의 직업을 수행하는데 기본적이고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직업능력 신장에 초점을 두고 농업인력 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농산물 유통과 가공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경영인으로서의 자질을 갖

표 4. 농업계 고등학교의 학생수 및 졸업생 진로 변화 추이

구분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전공분야(%)	비전공분야(%)
1990	17,566	1,328(7.6)	14,269(81.2)	5,595(39.2)	8,674(60.8)
1995	9,244	1,669(18.1)	6,847(74.1)	3,307(48.3)	3,540(51.5)
2000	9,865	4,201(42.6)	4,472(45.3)	2,195(49.1)	2,277(50.9)
2003	6,624	3,690(55.7)	2,438(36.8)	1,327(54.4)	1,111(45.6)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시스템 - 교육통계연보.

표 5. 고등농업교육기관의 학생수 및 졸업생 취업률

구분	농업계 전문대학			농학계 대학		
	졸업자수 (A)	농림업 취업자수 (B)	농림업취업률 (B/A)	졸업자수 (C)	농림업 취업자수 (D)	농림업취업률 (D/C)
1990	5,452	2,437	44.7	8,127	3,494	43.0
1995	3,021	1,792	59.3	8,265	4,154	50.3
2000	2,197	1,532	69.7	5,179	2,317	44.7
2003	644	465	72.2	2,118	1,034	48.8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시스템 - 교육통계연보.

출 수 있도록 재무관리와 수익성 분석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농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계고등학교와 농업계 대학간의 연계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전공내용을 대학에서 반복학습 하기 보다는 단계적인 심화학습으로 교재가 편성되어 체계적인 농업인력이 육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농업인력의 육성 체제를 보면 학교교육기관은 농업계 학교를 중심으로 신규 농업인력이 육성되고 있으며, 사회교육기관은 농림부 주관으로 농업인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인력 육성 차원에서 본다면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농업인력육성은 기존 농업인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할 뿐이며, 신규 농업인력을 육성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학

교교육기관과 사회교육기관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농업계고등학교나 농업계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한다면 후계 농업인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산학협동 교육의 활성화

산업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는 농촌지도기관과 농업교육기관간의 연계교육을 활성화 하여 농업교사와 농촌지도사 간의 상호 교류를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며, 농업교사들이 최신 농업기술과 경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재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학중인 학생들 중에서 장래에 영농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과제자금을 지원하여 재학 중에 실제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 새로운 비전 제시 및 정책적 지원

장기적인 차원에서 농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농업 분야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비롯한 보다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각종 농업연구기관을 통해서 고소득 작목을 개발하고 농업자금을 통해서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여 보다 효율적인 생산 활동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업정보**